

# 신안군·해남군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 신안 지도·임자지구와 해남 황산지구에 국비 등 50억씩 지원

김 수출을 늘리고 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는 '2023년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공모사업에 신안 지도·임자지구와 해남 황산지구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2023년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공모사업 1차 사업대상지로 신안군·해남군·서천군을 지정했다.

김 산업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3개 지방자치단체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1곳당 5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이번 공모 선정은 계기로 신안군은 친환경 유기인증 취득 등 김 산업 내실을 다지고, 해남군은 마른김 제품화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신안 북부권역인 지도와 임자도 38어가는 1118ha 규모 김 양식장을 공모사업 지구로 신청해 선정됐다.

신안군은 지난 1월 북부권역생산자협의회, ㈜신안천사김과 미국 수출 김 전용 단지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군은 사업지구를 친환경 유기인증 단지로 조성해 김 품질과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신안에서 생산된 조미김과 간식용 김은 미국과 일본, 중국, 캐나다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신안 갯벌이 지닌 게르마늄 성분 덕분에 이 지역에서 생산된 김은 맛과 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안군은 친환경 유기인증 단지 조성 외에도 친환경 기자재 보급, 친환경 유기인증 취득 지원, 김 가공 공장 품질 개선 등을 추진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으로 신안군이 김 수출 증대에 앞장설 수 있는 계기

#### 신안 지도·임자지구

38어가 1118ha 양식장  
친환경 유기인증 단지 조성  
가공공장 품질 개선 등 추진

#### 해남 황산지구

친환경 지주식 유기인증 김 생산  
화학약품 미사용 상품 가치 높아  
마른김 공장 100여곳

가 마련됐다"며 "체계적인 관리로 세계적인 명품 김 생산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안군과 마찬가지로 사업비 50억원을 확보한 해남군도 지역 김 브랜드 개발에 속도를 낸다.

해남군 사업 대상지는 황산면 산소항과 마른김 가공공장, 수협 수산식품산업 거점 단지 등이다.

해남김은 전국 물김 생산량의 25%를 차지하고, 지역에서 운영되는 마른김 가공 공장은 100곳이 넘는다. 해남에서 김은 지역 어민 소득 향상과 수산 경쟁력 확보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황산면 일원은 친환경 지주식 유기인증 김이 생산되는 해역이다. 조수 간만 차를 이용해 전통 지주



신안군과 해남군이 최근 해양수산부 '2023년 김 산업 진흥구역' 공모에 선정돼 각각 5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해남군 황산면 어민들이 지주식 김을 채취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식으로 유기 김을 생산한다. 활성 처리제 등 화학약품이 들어가지 않아 상품 가치가 높다.

지난 2014년 신흥어촌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기수산물 인증을 취득하고, 이어 산소·한자·정의·성산어촌계가 유기수산물 인증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해에는 75개 가구가 966ha 면적에서 2708t의 유기인증 김을 생산해 37억원의 소득을 거뒀다.

이들 지역에서는 고품질 물김만을 사용한 친환경 유기인증 마른김을 생산하고, 마산면 수산식품 거점 단지는 조미김·스낵김 등 가공식품을 만들어낼 방침이다.

우선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하며 가공 김 품질과 안전성을 높인다. 또 이물질 선별기와 절단기,

조합기, 탈수기, 건조기 등 설비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 생산 과정의 효율화를 위해 양식 기자재와 냉동망 보강시설, 육상채도 시설도 확대한다. 여기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상담 비용과 유해물질 검사비용을 지원하며 상품 경쟁력을 높인다.

해남군은 김 수출 판로를 넓히기 위해 해외식품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수출 상담과 인증대행업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해남군은 올해 안에 친환경 유기인증 가공 김을 제품화해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과 로컬푸드, 생방송 판매(라이브커머스) 등에 활용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신안=이상선 기자 sllsee@kwangju.co.kr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AI 챗봇으로 목표 관광 시, 챗GPT 기반 서비스 도입

목포시가 지자체 관광앱(APP) 최초로 Open AI(오픈 에이아이) 챗GPT와 네이버 하이퍼클로바를 기반으로 한 AI챗봇 서비스를 개발, 도입할 계획이다.

목포시에 따르면 챗GPT는 Open AI사에서 개발한 인공지능(AI) 챗봇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사용 해외 관광객에게 맞춤형 관광정보를 제공한다.

하이퍼클로바는 네이버에서 개발한 초거대 규모 인공지능으로 한국어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 챗GPT의 한계를 보완해 국내 관광객에게 최적화된 관광정보를 즉각적으로 서비스하게 된다.

목포시는 최근 스마트관광 플랫폼 고도화 사업 착수보고회를 갖고 관광 편의성 강화를 위한 AI챗봇, 콘텐츠 차별화, 예약결제 고도화 및 서비스 강화 등 이번 고도화 사업의 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에 개발되는 새로운 AI챗봇은 기존 앱 내에서 관련 연결 페이지만 제공하는 챗봇 기능을 개선해 구어체 형식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찾고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관광객들은 목표의 맛집, 관광명소, 여행지 추천 등 실시간 대화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스마트관광 플랫폼에 인공지능 챗봇을 적용한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관광 기술을 융합해 체감도 높은 선진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며 "관광거점도시에 걸맞은 관광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국내외 관광객의 니즈에 최적화된 맞춤형 관광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 '6차례 무산' 목포신안 통합 이번엔 성공할까

### 추진위 출범 본격 통합 활동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최태욱·이하 통추위)가 최근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출범식을 하고 본격적인 지역통합 활동에 나섰다.

지난 10일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박홍률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 김원익 국회의원, 문차복 목포시의회 의장, 추진위원 등이 참석했다.

최태욱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신안과 목포는 분디한 뿌리이며 생활, 문화, 경제, 교육 등 많은 부문이 한데 얽혀 있어 목포가 신안이고 신안이 목포인 사실상 일심동체"라고 말했다.

박홍률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방소멸의 시대를 맞아 민간 중심으로 목포·신안 통합의 공감대를 만들면서 관광통합, 경제통합, 행정통합을 이뤄 두 지역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가지"고 결의했다.

이어 새로 위촉된 추진위원과 홍보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통합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성명에서 "양 지역 상생과 번영을 위한 행정통합은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되며 지난 6차례의 통합무산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번에는 반드시 통합의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 출범식 참가자들이 지역통합 문구를 담은 홍보물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목포신안 통합추진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활동가 80여명으로 구성된 순수 민간단체이다.

목포와 신안 주민들이 상생협력 할 수 있도록 목포시 자생단체와 신안군 자생단체 간 자매결연을 추진한다.

지역민 교육프로그램인 어울아카데미 운영, 통합 이후 발전방향과 비전 제시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 캠페인 광고 등 다양한 사업들도 펼칠 계획이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 영암축제 어린이 독서골든벨 영암군 참가자 선착순 모집

영암군이 '2023 영암왕인문화축제'를 앞두고 어린이들의 독서 흥미 유발과 책 읽기 생활화를 위해 어린이 독서 골든벨을 개최한다.

4월1일 열리는 독서골든벨의 참가자는 선착순 100명으로 초등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어린이는 소속 학교나 기관의 단체 신청을 통하거나 거주지 인근의 영암·삼호·화산도서관을 개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왕인박사유적지 내 축제 주무대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선정 도서 3권의 내용을 토대로 O/X퀴즈, 객관식, 단답형 주관식 등의 형태로 출제된 총 80개의 문제를 최후 1인이 남을 때까지 푸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우수상(1명), 우수상(1명), 장려상(2명), 특별상(6명)이 수여된다.

올해 영암왕인문화축제는 'K-컬처의 시작, 왕인의 빛'을 주제로 3월30일부터 4월2일까지 4일간 군 서면 왕인박사유적지와 상대포역사공원, 구림마을 일원에서 펼쳐진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 완도군 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원 지원

완도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3%(최대 300만원)를 2년간 지원한다.

완도군은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사진)을 맺고 '완도 소상공인 용자금 이차보전·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정책 사업에는 광주은행과 NH농협은행, 완도농협, 노화농협, 완도군산림조합, 완도신협, 완도제일신협 등 7개 금융 기관이 참여한다.

완도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활동하는 소상공인은 이달부터 특별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은 최대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완도군은 2년간 이자율 3%(최대 300만원)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완도군과 업무협약을 맺은 7개 금융 기관은 전액 보증 담보 대출 때는 4.8% 이자율을 적용한다. 부분 보증 담보 댄 5.3% 이자율을 적용한다.

전남신보는 완도군의 출연금 1억원을 재원으로 총 10억원 규모 보증을 제공한다.

완도 소상공인이 3000만원 이하 대출 때는 100% 전액 보증을 받고, 3000만원을 초과하면



90% 부분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보증 수수료는 모두 완도군이 지원한다.

특별보증 이용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우선 전남신보 완도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받은 뒤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전남신보 완도사무소는 NH농협은행 완도군지부 2층에 있으며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문을 연다.

허동주 완도군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특별보증 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장기소 영광군의원 서울·경기 찾아 벤치마킹

영광군의회는 장기소(왼쪽 다섯 번째) 의원이 최근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 구로구와 경기 용인시 등을 찾아 선진 정책 도입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고 13일 밝혔다.

장 의원 일행은 내년 준공 예정인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와 '영광 역사문화 박물관' 건립 추진을 위한 선진 정책을 살피고자 이번 방문을 기획했다.

우선 서울 구로구에 있는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를 찾아 청년 수요에 맞는 맞춤형 창업지원 사업과 교육시설을 둘러봤다.

경기 용인시에 있는 '어린이 박물관'에서는 체험형 전시장을 살펴보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역사 전시물 구성 등을 논의했다.

이어 수원시 '국립농업박물관'을 찾아 추진 과정과 건립 초기 운영,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장 의원 일행은 박물관 건립 때 접근성을 고려한 입지 타당성과 이용자 설정 등을 고민했다.

장 의원은 "청년 창업은 지자체 소멸을 막기 위한 지속성장의 답이기에 형식적 지원이 아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며 "박물관 건립의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위치 선정, 운영 방향 등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우 기자 jylee@kwangju.co.kr

## 진도군, 적극 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진도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적극 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 행정 추진계획 수립, 주민 제감도, 적극 행정 활성화 노력과 이행성과 등을 종합 평가한다.

진도군은 이번 평가에서 적극 행정 실행계획 수립과 우수공무원 선발, 인센티브 부여, 사전 컨설팅 제도 운영 등 다양한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주민과 직결된 ▲집집마다 행정서비스 배달 ▲가상현실 차대케어 서비스플랫폼 구축 ▲찾아가는 물리치료센터 운영 등 군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시책 추진 등에서 호평을 받았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우수기관 선정은 기존의 관행을 탈피해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는 공무원들이 노력한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더욱 다가서는 적극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

## 해남군, 군민의 상 후보자 추천받는다

24일까지... '지역사랑후원' 신설

해남군이 오는 5월1일 제50회 해남군민의 날을 맞아 '해남군민의 상' 수상 후보자와 군정의 각 분야에서 기여한 군정발전 유공자를 추천받는다.

해남군민의 상은 지역발전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군민 복지증진에 앞장서 해남군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문화예술의 장달, 군민회합 등 군민의 표상이 될 만한 수범을 보인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된다.

군정발전 유공자는 당 분야에서 장기간 공적을 쌓아 타의 귀감이 되는 개인 또는 군정 시책에 적극 호응해 군민소득증대 등 지역사회 발전과 군

민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가 대상이다.

올해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부 등을 통해 군민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지역사랑후원 분야도 추천받을 예정이다.

수상자는 군민의 상 2인 이내, 군정발전 유공자 30인 내외로 제50회 해남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에 수여할 예정이다. 추천기한은 오는 24일까지이며 추천자는 읍·면·동 또는 유관기관 단체장이거나 해남군 관계자는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숨은 주인공들을 찾아 지역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